

록히드사의 JASSM이 미공군의 스탠드 오프 미사일 규정에 더 정확히 접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美 록히드마틴사 JASSM 선정돼 약 20억달러 이익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미군 차세대 공대지 미사일인 JASSM(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 프로젝트에 입찰, 최종 선정됐다. 록히드 마틴사는 미 공군에 납품할 2,400대의 순항 미사일의 제작을 놓고 보잉사와의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약 20억달러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4월 9일 록히드 마틴사를 JASSM 개발사로 최종 확정, 프로그램의 리스크 감소 및 정의단계 완수 그리고 미사일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및 제작준비를 위해 3천 6백만달러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국방부의 이와같은 결정에 미 해군은 회의적인 반응이

다. 해군은 그동안 하푼(Harpoon)미사일 파생형인 보잉의 SLAM을 선호해 왔기 때문이다. 캡트 그랜트 베글리 해군 JASSM 프로그램 이사는 JASSM 프로젝트는 미 해군과 동떨어진감이 있어 SLAM-ER이 단기적으로 보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또 "해군은 JASSM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나 현재까지의 해군내 조달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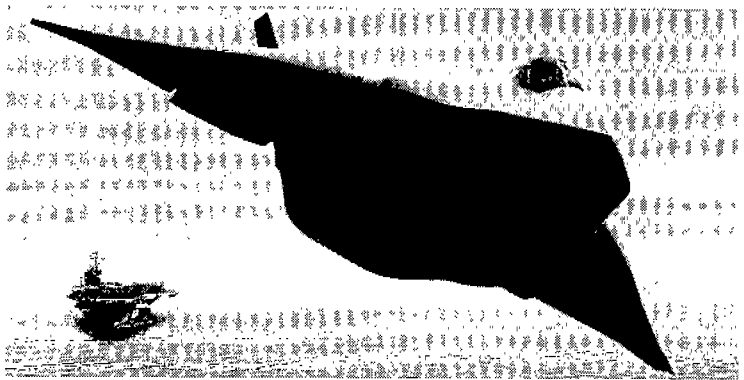
해군의 이와같은 반응에 비해 공군측은 이번 록히드 마틴사로의 결정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 록히드 마틴사는 공군측이 제시한 대당 40만달러가격 이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측은 록히드 마틴사의 저가 미사일 제작과 풍부한 기술경험이 이번 보잉사의 경쟁에서 승리한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JASSM의 생산은 연 95대로 시작하여 다음 2년간 100대씩, 그리고 연 최고 360대로 나머지 7년간 생산될 예정이다.

### JSF 설계변경에 고심... 비용절감이 최대목표

미국 국방부는 제작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합동타격전투기 즉 JSF의 몇 부분을 개량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측에서는 JSF 필요조건(Requirements)을 담은 문서에



코스트절감이 JSF의 핫이슈.가격면에서 보잉사의 기종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는 3가지의 계획된 파생형의 코스트를 절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주요변화는 전투기내 무기 장착을 현 2개 900kg 에서 2개 450kg 으로 줄이고 장착대의 소형/공용성을 추구하게 된다.

보잉사의 JSF 프로그램 과장인 프랭크 스타쿠스씨는 "이번 변화는 무게를 유지하되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JSF의 개발은 보잉 및 록히드 마틴사의 작업으로 추진중이다. 3번째 필요조건 의 초안은 올 7월까지 완성되어 이를 토대로 최종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스타쿠스 과장은 현재 보잉의 JSF 디자인이 코스트 목적에 우세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렛(Inlet), 무가 장착대 그리고 착륙장치 등의 향후 작업을 포함하여 기종의 여유성(Affordability)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2천 8백만 달러보다 낮은 CTOL의 가격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록히드 마틴 측은 JSF 디자인상의 가격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고 있으나 현재 제안서 한부분인 제작개선상에서의 비용계산 방식을 변경토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가격 계산방식은 이 프로그램에 맞지않는다는 의견이다.

보잉사는 디자인 상에서 JSF 파생형 3가지(CTOL, CV,

STOVL)의 공통성(Commonality)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85%의 부품의 공통사용은 현재 70%로 감소되었다.

### 인도,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 생산 돌입

인도는 러시아가 설계한 신예 수호이(SU)-30 전투기를 내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인도 국영 힌두스탄항공기회사(HAL)의 C.G. 크리쉬나다스 회장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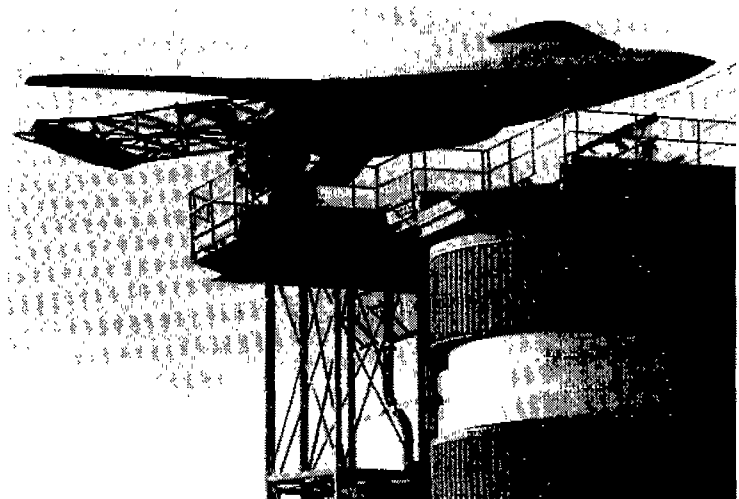
크리쉬나다스 회장은 HAL이 만드는 SU-30 전투기가 오는 2001년에 처음 인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40대의 SU-30 전투기 구입을 위한 러시아와의 계약은 인도에 대해 전투기 제조기술을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리쉬나다스 회장은 러시아가 지난해 체결한 6백30억루피(16억 달러)짜리 계약에 따라 지금까지 SU-30 8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 F-22 모델, 시스템 성능시험위해 제작

1:1 모형의 F-22의 전방부분이 텍사스의 포트웨스 지역의 한 건물 타워에 설치됐다. 보잉 및 록히드 마틴사에 의해 개발중인 동 기종은 현재 이 모델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항법 그리고 자기식별(CNI) 시스템의 시험이 수행됐다.

록히드 마틴사 전술항공기 시스템부에서는 이번 테스트에 달라스 공항등지로부터 실제 시그널을 사용하여 CNI의 성능과 정확성 등을 시험, 검증할 예정이다.



종합적인 통신시스템의 시험을 위해 장착된 F-22의 모습